

언어화 과정에서 본 문법의 기능에 대하여*

이 동 혁(부산교육대)

〈목 차〉

- | | |
|------------------------|----------------------|
| 1. 서론 | 4. 언어화 과정에서 본 문법의 기능 |
| 2.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의 기능과 한계 | 5. 결론 |
| 3. Level(1989)의 언어화 | |

1. 서론

이 글은 언어화 과정에서 문법의 기능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넓은 의미에서 문법은 한 언어의 문법 단위를 이루는 체계 전반을 가리킨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법서에서는 이보다 좁혀서 한 언어의 문장을 이루는 체계 전반을 가리켜 문법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보통이다(이익섭·임홍빈 1983; 이익섭·채완 1999). 그리고 이에 더하여 음운론과 의미론 분야를 제외한, 단어와 문장의 구조를 다루는 분야를 더 좁은 의미의 문법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이익섭·임홍빈 1983; 이익섭·채완 1999). 대부분의 문법서에서 문법의 범위를 좁게 한 것은 기술문법과 생성문법이 지향하고 있는 문법에 대한 태도를 대폭 수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중요한 문법 기능을 제대

* 이 논문은 2012년도 부산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로 보지 못한 것이 많다.

먼저 기술문법(descriptive grammar)은 문장에 내재한 규칙 집합을 경험론적으로 분석하려는 입장에서 서 있었다. 문장을 최대 크기의 분석 대상으로 삼고서, 그걸 절, 구, 단어 등으로 하위 분석하여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기술문법의 주된 일이었다. 이 때 기술문법의 핵심적인 분석 방법론은 문장을 이루는 각 단위의 계열관계와 결합관계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 (1) 강아지 한 마리가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마도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내일은 내가 그 녀석에게 직접 밥을 줘야겠어요.

가령, 위의 예에서 ‘직접’은 ‘주다’의 앞에 와서 ‘주다’를 수식하는 결합관계를 보이는데, 이를 계열관계를 통해서 유형화하여 ‘직접’을 비롯한 부사는 ‘주다’를 비롯한 동사 앞에 와서 동사를 통사적으로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고 규칙화하는 식이다. 한편, 생성문법(generative grammar)에서는 ‘강아지 한 마리가 밥을 먹고 있어요’ 따위의 문장을 계열관계와 결합관계의 경험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 $S \rightarrow NP+VP$ ’와 ‘ $VP \rightarrow NP+V$ ’와 같은 규칙이 이미 우리 머릿속에 생득적으로 있어서, 이 규칙을 가지고 위와 같은 문장을 생성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술문법과 생성문법이 언어의 구조와 체계를 규명하는 데 공이 크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기술문법과 생성문법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여전히 꽤 남아 있다. 여기서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의사소통’이라는 점을 전제하여 놓고 기술문법과 생성문법이 지닌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언어적 의사소통(verbal communication)은 화자와 청자가 언어를 매개로 하여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이다. 따라서 문법 기능은 언어와 메시지의 관계, 언어와 화·청자의 관계 등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술문법과 생성문법에서는 언어 자체를 놓고 언어에 내재한 문법 기능을 살펴려했었지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언어가 사용된다는 사실은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¹⁾ 그 때문에 언어와 메시지의 관계, 언어와 화·청자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1) 기술문법에서는 ‘파롤(parole)’이 아니라 ‘랑그(langue)’에 중점을 두고 문법의 기능을 파악하였으며, 생성문법에서는 ‘언어 수행(language performance)’이 아니라 ‘언어 능력(language

문법 기능은 논의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앞서 본 (1)은 화자가 과거에 경험한 사건을 언어 발화로 옮긴 것이다. ‘강아지가 밥을 먹는 사건’에 포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하위 사건이 있을 수 있는데, 왜 (1)에서 화자는 특정한 세 사건과 상태만을 가져 왔을까? 화자는 ‘먹는 사건’의 행위자로 ‘개’가 아니라 왜 ‘강아지’를 언어 표현으로 선택하였을까? ‘강아지가 밥을 먹었어요’로 해도 될 것을 왜 화자는 ‘강아지 한 마리’, ‘먹고 있었어요’로 표현하였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는 것은 (1)의 발화에 작용한 문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대답하는 것과 같다.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메시지의 관계, 언어와 화·청자의 관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화자가 청자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오직 한 문장에만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화자의 메시지는 몇 개의 문장에 나누어 담겨 청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보통이다. (1)의 예만 해도 화자는 ‘강아지가 밥을 먹는 사건’을 세 개의 문장에 나누어 담았다. 이 때 화자는 그 몇 개의 문장들을 응결성(cohesion) 장치를 써서 응집성(coherence)이 있게 청자에게 전해야 하고, 청자는 이를 바탕으로 화자가 자신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복원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메시지 아래 여러 개의 문장들이 응집성이 있게 존재하려면 여기에 소용되는 문법 장치가 있어야만 한다.

의사소통의 한 주체인 화자는, 청자의 배경 지식, 화자와 청자와의 관계, 의사소통을 둘러싼 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자신의 의도를 청자에게 언어로 전달하려고 한다. 화자는 이를 위해 ‘언어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2) ‘언어화(verbalization)’는 ‘비언어적인(nonverbal information) 정보가 언어로 바뀌는 과정’을 일컫는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 모두가 비언어적인 정보이다. 이 정보를 가지고 의미를 구성하고, 다시 그 의미를 언어 기호로 바꾸는 일체의 과정을 ‘언어화’라고 말할 수 있다. 언어화의 대상이 되는,

competence)’에 중점을 두고 문법의 기능을 이해하였다. 의사소통은 언어 수행의 과정에서 파동이 실현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사소통 상황을 거의 배제해 버린 기술문법과 생성문법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2)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사고·메시지·정보를 기호에 담아서 ‘주고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비해 ‘언어화’는 사고·메시지·정보를 담은 수단이 언어 기호로 한정하여 화자가 청자에게 전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언어화 이전의 비언어적인 정보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언어화할 수도 있겠지만, 몇 개의 문장들이 그 비언어적인 정보를 나누어서 언어화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러 언어화의 과정 속에서 기술문법과 생성문법에서 보지 못하였던 중요한 문법 기능을 살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³⁾

이 글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2장에서는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의 기능과 의사소통에서 발견되는 언어의 한계점을 살필 것이다. 3장에서는 대표적인 언어화 연구인 Levelt(1989)를 소개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일 것이다. 그리고 4장에서는 Croft(2007)의 언어화 연구를 통하여 문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2장에서 4장까지 논의한 바를 요약하고 정리할 것이다.

2.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의 기능과 한계

언어는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을 위하여 사용된다 (Beckner 외 2009). 때때로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 협력적이지 않기도 하지만, 본래 사회적 상호작용은 공유된 상호협동적 작업활동(shared cooperative activity)과 협동행위(joint action)를 지향한다. 그렇지만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당연히 상호조율의 문제(coordination problem)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의 참여자들은 다양한 상호조율의 장치(coordination devices)를 써서 상호조율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⁴⁾

- 3) 문법의 기능을 문장의 한정된 단위가 아니라 담화나 텍스트까지 포함해서 의사소통의 토대 위에서 찾아보려 하는 것은 기능문법의 기본적인 관점이다.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언어 사용자의 의도가 문법의 기능을 설명하는 데 도입되고, 통사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의미·화용론적인 배경으로 문법의 기능을 이해하려고 하였던 것은 기능문법의 공이었다. 따라서 이 글의 이론적 토대는 기능문법에 닿아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 4) 우리가 사회적 상호작용의 특정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이와 협동행위를 할 때, 명시적으로 서로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전의 경험에 근거하여 상호조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가령, 철이와 영이가 만나기로 공동의 목표를 정했다고 하면, ‘언제, 어디서’ 만나야 하는지에 관한 상호조율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철이와 영이가 학교 앞에서 오후 8시에 만나자고 둘이서 약속을 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둘이 늘 그래왔듯이 습관적으로 학교 앞에서 오후 8시에 만날 수도

의사소통은 대표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상이다. 의사소통이 사회적 상호작용인 만큼 의사소통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상호조율의 문제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지금까지 인간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강력한 상호조율의 장치로서 관습적인 기호 체계(**conventional signaling system**)를 발전시켜 왔다 (Clark 1996; Croft 2007). 여기서 ‘관습(**convention**)’은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상호조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조율의 장치로서 의사소통의 협동행위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⁵⁾ 이런 목적을 가진 관습의 대표적인 형식이 바로 언어다.⁶⁾

그러나 관습으로서의 언어 장치로는 의사소통 참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조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이처럼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호조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까닭은 언어적 관습이 본질적으로 갖는 한계인 ‘지표성(**indexicality**)’과 ‘중의성(**ambiguity**)’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Croft 2007).⁷⁾

(2) 가. 영이야, 의자 좀 줘 봐.

나. 오늘 영이랑 의자를 바꾸었어.

다. 의자 밖으로 튀어 나온 못 때문에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다.

가령, (2가)~(2다)의 발화에서 ‘의자’라는 단어는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있다. ‘만남’이라는 협동행위는 이와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상호조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언어는 명시적인 합의를 통해 화자와 청자가 일시적으로 상호조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 ‘관습’에 가깝다고 해야겠다.

- 5) 생성문법에서는 언어 능력이 유전자의 형태로 우리의 머릿속에 생득적으로 내재해 있다고 하였으나, 기능문법에서는 강력한 상호조율의 장치로서 언어가 일종의 ‘관습(**convention**)’으로 저장되어 있다고 하였다. 참고로 Lewis(1969)와 Clark(1996)에서는 ‘관습’이 다음의 특성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관습은 ① 행위상으로 규칙성 **r**을 지니고, ② 부분적으로 자의적이며, ③ 주어진 공동체 **C**에서 공통기반이 되고, ④ 상호조율 장치로서, ⑤ 반복되는 상호조율의 문제 **s**에 대한 해결책이다.”
- 6) Tomasello(2003)도 이에 동의한다. “언어 기호는 사회적 관습이고, 인간들은 이 언어 기호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주의 상태와 심적 상태를 외부 세계의 특정 대상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그들과 주의를 공유하고자 노력한다.”
- 7) Clark(1996)에서는 이 두 원인 말고 맥락성(**contextuality**)과 층렬 도입(**layering**)의 원인을 더 들었다. 여기서 ‘맥락성’은 언어가 실제 맥락에서 여러 가지 맥락적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고, ‘층렬 도입’은 언어가 사용되는 환경이나 화자의 심적 태도 등을 말한 것이다.

특정한 맥락을 개입시키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어떤 ‘의자’를 지시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는 ‘의자’라는 단어가 (2가)~(2다)의 발화 말고도 다른 발화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유형(type)’이나 ‘범주(category)’ 혹은 ‘집합(set)’의 성질을 떨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2가)~(2다)와 같은 특정한 발화 환경에서 화자는 ‘의자’를 ‘유형/범주’가 아니라 ‘징표(token)’를 의도하고 발화하여야 하고, 또 청자도 ‘징표’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를 Croft(2007)에서는 언어의 ‘지표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 (3) 가. 그 말을 들은 철이는 계속해서 머리를 가웃거렸다.
 나. 머리 좀 그만 빗어.
 다. 이번에 보니 그 녀석은 아주 머리가 좋아.
 라. 저는 이곳에서 머리가 되기에는 아직까지 모자람이 있습니다.

언어의 ‘지표성’ 문제 말고도 ‘중의성’의 문제가 더 있다. 위의 예에서 ‘머리’의 의미는 다 다르다. 단순하게 ‘머리’라는 단어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 보더라도 10개가 넘는 수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용법설을 인정한다면 단어의 의미가짓수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해당 단어가 특정한 발화 환경에서 무엇을 뜻하는지는 단어 그 자체만으로 결코 알 수가 없다.

화자와 청자가 서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언어 관습의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든 극복해 내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언어 사용자들이 공통기반(common ground)으로서 ‘협동상 두드러짐(joint salience)’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⁸⁾ 그러나 위에

8) 방바닥에는 레고 장난감이 널려 있고, 방 주위에는 소파와 책장과 텔레비전이 놓여 있는 방 안에서 두 아이가 레고 장난감을 갖고 집짓기 놀이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 여기서 두 아이가 소파, 책장, 텔레비전을 계속해서 지각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주목하고 있는 대상은 아니다. 그들이 같이 주목하고 있는 대상은 레고 장난감이다. 왜냐하면 이 방 안에 있는 두 아이가 공동으로 목적으로 삼고 있는 바가 ‘장난감으로 집짓기 놀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레고 장난감’은 ‘협동상 두드러짐’의 대상이다. 이렇게 ‘협동상 두드러짐’이 나타나게 된 것은 대화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주목하게 되는 바는 ‘의도(intention)’에 의해 정해진다. 만약 문법적 장치에 의한 도움이 없이도 화자와 청자가 동일한 징표를 의도하고 있다면, 이는 화자와 청자가 특정한 의도에 따라 협동상 두드러짐이 같아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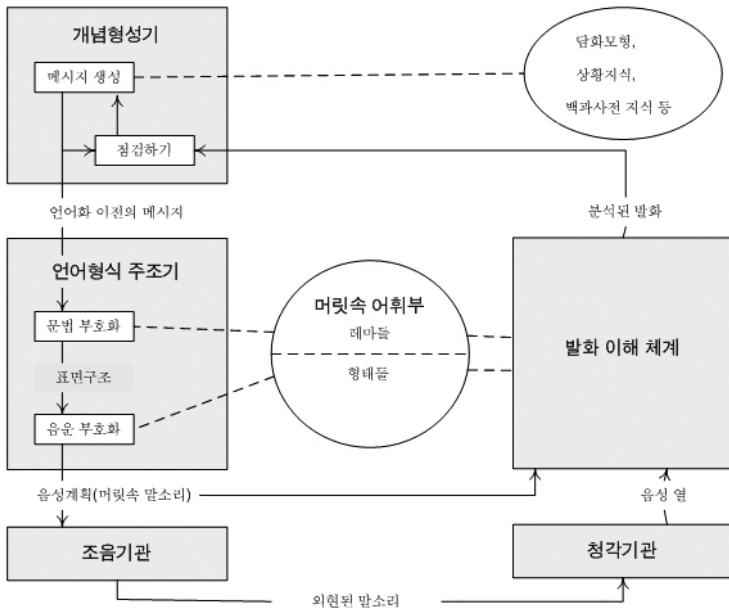
서 살펴본 언어 관습의 문제가 대개 내용어(content word) 차원에서 발생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문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여지는 더 있어 보인다.⁹⁾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적 상호작용, 그 중에서도 특히 의사소통을 위한 관습 체계로서 언어가 어떤 기능을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언어는 반복되는 상호조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상호조율의 장치였다. 그렇지만 관습으로서 언어 장치가 상호조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다. 이는 언어가 본질적으로 지니는 지표성과 중의성 때문인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방법은 대화 참여자들이 다함께 협동상 두드러짐에 의존하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문법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글의 4장에서는 언어화 과정에서 문법이 반복되는 상호조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3. Levelt(1989)의 언어화

‘언어화’는 화자와 청자의 의사소통 모형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화자가 청자에게 전하려고 하는 바를 언어 형식에 담는 과정을 단계별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위한 문법의 기능을 언어화의 과정에서 실제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언어화의 모형을 보인 대표적인 연구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Levelt(1989)가 있다. 이 연구는 ‘언어 산출(language production)’에 관한 것으로, 연산주의 가정에 기반하여 화자의 의도를 언어로 내보내는 과정을 모형화한 것이다. 이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기 위하여 Levelt(1989)에서는 ‘언어 산출’의 과정을 ‘개념 형성기 → 언어형식 주조기 → 조음기관’으로 나누었다.¹⁰⁾

9) Talmy(2000)에서는 화자가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화를 함으로써 청자에게 특정한 인지 표상(cognitive representation)의 특정 부분을 환기시킨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발화의 어휘적 시스템이 환기시키는 부분과 문법적 시스템이 환기시키는 부분이 다르다고 보았는데, 어휘적 시스템은 인지 표상의 내용(content)을 결정하고 문법적 시스템은 인지 표상의 구조(structure)를 결정한다는 것이다(한정환 2003:289). 비록 Talmy(2000)에서 어휘적 시스템과 문법적 시스템의 차이에 대해 주목하였지만, 이 두 시스템은 상호보완적이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어휘의 내용을 문법으로 구조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과정에서 위에서 지적한 언어 관습의 문제를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림 1〉 Levelt(1989)의 언어 산출 모형

언어 산출의 첫 단계인 ‘개념 형성기’에서는 화자가 청자에게 전하려고 하는 의사소통의 의도가 결정된다.¹¹⁾ 이 의사소통의 의도에 따라 화자와 청자 사이의 정보 간극을 파악할 수 있는 모형, 외부 세계에 대한 배경 지식, 수식어를 선택할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표현 방식을 결정하는 서술 관점 등이 유기적으로 상관하여서, ‘언어화 이전의 메시지(preverbal message)’를 만들어 낸다. Levelt(1989)에서는 이렇게 생산된 언어화 이전의 메시지가 술어와 논항

- 10) 언어화의 과정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지만, 이 과정을 한 단계씩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Fodor(1983)의 단원체 가정에 따라 연산주의 방식으로 언어 산출 과정을 다루었다(김지홍 2011:130). Levelt(1989)의 모형이 Levelt(1999)에 와서는 두 개의 부서만을 상정해 놓았다. 곧, ‘수사학적-의미론적-통사론적 체계 → 음운-음성 체계’로 더 단순화되었다.
- 11) 한 심사위원이 ‘개념 형성기’에서 벌어지는 일이 ‘언어화 이전의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므로 ‘언어화’ 과정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언어화 이전의 메시지’라는 용어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Levelt(1989)가 심사위원의 지적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언어화 이전의 메시지’는 어디까지나 ‘언어화’를 전제로 하여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으로 이루어진 ‘명제(proposition)’의 모습을 지닌다고 하였다.

(4) 먹다(‘강아지’Agent, 밥’Theme)

(4)와 같은 언어화 이전의 메시지는 다음으로 ‘언어형식 주조기’로 들어간다. ‘언어형식 주조기’에서는 언어화 이전의 메시지가 가진 특정한 언어값을 매개로 하여 ‘문법 부호화’와 ‘음운 부호화’가 이루어진다.¹²⁾ 의미역 구조를 배당 받은 언어화 이전의 메시지는 술어와 논항에 각각 의미 정보값과 통사 정보값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각 의미·통사값(=레마)에 해당하는 단어를 어휘부에서 검색하여 찾으면 되는데, 이 때는 술어의 단어를 먼저 찾고 다음으로 논항의 단어를 찾는 것이 처리의 순서다. 즉, 명제의 핵인 동사를 먼저 꺼내고 나서 그 동사의 레마를 참조하여 관련 논항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인출한다.¹³⁾ 여기까지가 ‘문법 부호화’ 과정이다. 다음으로 문법적으로 부호화한 표면 구조에다가 형태와 음운의 정보를 부여하는 과정이 ‘음운 부호화’다. 이렇게 ‘언어형식 주조기’에서 부호화 과정을 거치고 나면 화자의 머릿속에 ‘강아지가 밥을 먹었어요’라는 음성 계획이 남게 되고, 조음기관을 거쳐서 실제 발화되기를 대기한다.

이 글의 목적이 언어화 과정에서 본 문법의 기능을 살피는 것이니만큼 ‘문법 부호화’ 과정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위에서 간단하게 살핀 ‘언어형식 주조기’의 작용은 언어화 이전의 메시지가 가진 특정한 언어값을 매개로 하여 동사와 관련 논항을 인출하는 것이었다. ‘문법 부호화’ 과정에서는 이렇게 인출한 동사와 논항들을 통사적으로 배열하는 구조를 보여 준다. 즉, 언어의 형상성에 따라 인출한 레마들의 어순을 고정하거나 격 표시 따위를 붙여서 ‘음운 부호화’ 이전의 ‘표면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¹⁴⁾ 영어처럼 형상성

12) Levelt(1989)에서는 이 특정한 언어값을 특별히 ‘레마(lemma)’라고 부르고 있다. 레마는 우리의 어휘부(lexicon)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통사 정보값과 의미 정보값을 함께 가진다.

13) Caramazza and Miozzo(1997)과 Engelkamp and Rummel(1998)과 같은 대개의 언어 산출 연구에서는 ‘그림 명명(picture naming)’과 같은 비교적 비조합적인 과제(non-combinational tasks)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이들은 네트워크 확산 활성화로 언어 산출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Levelt(1989, 1999)에서는 조합성(combinationality)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어휘항목이 틀의 빈자리를 채워 나가는 단계별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Jackendoff 2002:211 참조).

을 갖고 있는 언어라면 어순이 고려되겠지만, 한국어처럼 형상성을 갖고 있지 않은 언어들은 문법 기능을 나타내는 표지들을 붙여 넣게 된다(김지홍 2009:248-249).

이상에서 Levelt(1989)의 언어화 모형을 ‘개념 형성기’와 ‘언어형식 주조기’에 국한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Levelt(1989)가 언어 산출 연구에 있어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Levelt(1989)에서는 Fodor(1983)의 단원체 가정에 따라 이른바 ‘의미부’와 ‘형식부’를 명시적으로 따로 두었다.¹⁵⁾ 이로써 ‘의미부’에서 처리되는 언어화의 일과 ‘형식부’에서 처리되는 언어화의 일이 별개가 되어 버렸다. 나아가 ‘의미부’와 ‘형식부’는 선형적으로 이어져 있어서 언어형식이 주조되는 과정에서 의미 특성이 작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미부’에서 모든 의미 작용이 마련되고 나서야 이걸 가지고 ‘형식부’에서 언어형식을 주조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Levelt(1989)의 언어 산출 모형에서는 문법이 ‘의미부’에서 작동할 공간이 없어져 버렸다. 청자의 정보 축적량과 질을 파악하고, 상황 지식이나 백과사전적 지식을 고려하며, 표현 방식을 결정하는 서술 관점이 개입하여 언어화 이전의 메시지를 산출하는 모든 과정의 일은 ‘개념 형성기’가 맡는다. 대신 문법은 오로지 ‘언어형식 주조기’의 ‘문법 부호화’ 단계에서만 요구될 뿐이다. 그리고 언어화 이전의 메시지의 술어와 논항에 해당하는 레마를 어휘부에서 인출한 뒤, 이 레마를 통사적으로 배열한 후, 각 레마에다 조사나 어미 따위를 붙여 넣는 일이 문법 기능의 대부분이다. 그래서 문법은 의미와 괴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법의 기능마저 매우 축소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것 말고 문제 하나를 더 들 수 있다. Levelt(1989)에서는 개념이 언어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즉시 그 개념들을 표상의 명제적인 모습으로 부호화해 놓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비명제적인 지식이 명제적 지식 표상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보이지 못해 선언적이었고, 또한 명제 구조가

14) <그림 1>에서 보인 Levelt(1989)의 언어 산출 모형에 따르면 ‘문법 부호화’와 ‘음운 부호화’가 ‘언어형식 주조기’에 함께 포함된 언어화 과정이지만, Levelt(1999)에서는 ‘문법 부호화’와 ‘음운 부호화’를 분리하여 ‘문법 부호화’는 ‘수사-의미-통사 체계’에 해당하는 언어화 과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15) 여기서 ‘의미부’는 ‘개념 형성기’에 해당하고, ‘형식부’는 ‘언어형식 주조기’와 ‘조음기관’에 해당할 것이다.

언어 표상의 입력 부분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미 그것은 언어 구조를 너무 밀접하게 반영하여 버렸다(Croft 2007). 따라서 Levelt(1989)의 언어화 모형에서는 문법이 단순히 어순을 조정하거나 조사나 어미 따위를 내용어에다 부착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버려서 문법의 기능을 매우 축소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다.

4. 언어화 과정에서 본 문법의 기능

Levelt(1989)의 언어 산출 모형에서 문법은 단순히 조사나 어미 따위의 문법 형태소 목록과, 어휘항목을 조합하는 규칙 이상이 아니었으며, 문장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미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보기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Levelt(1989)가 기술문법이나 생성문법과는 달리 의사소통 상황을 배경으로 한 언어화 과정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에서 기술문법과 생성문법에 대해 진일보한 면이 있으나,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언어적 전략으로서 문법이 존재한다는 인식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언어화 모형은 Croft(2007)의 것이다. 이 언어화 모형은 Chafe(1977a, 1977b)의 연구 결과에서 크게 발전한 것으로, 기술문법이나 생성문법뿐만 아니라 Levelt(1989)에서 보지 못했던 문법의 기능을 잘 보여준다. Chafe(1977a, 1977b)의 언어화 모형은 Levelt(1989)의 언어 산출 모형과 여러 가지로 차이가 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언어화 이전의 상태’다. Levelt(1989)에서 ‘언어화 이전의 상태’는 ‘언어화 이전의 메시지’이며, ‘명제 형식’으로 표상되어 있었다. 반면에 Chafe는 ‘언어화 이전의 상태’가 과거 사건(past events)에 대한 기억이고, 이 기억은 ‘비명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명제가 특정한 사태에 대하여 참과 거짓을 따질 수 있는 것인데,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화자가 별개의 상황에서 창조적으로 새롭게 명제화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Chafe는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이 비명제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¹⁶⁾

16) 토론토 대학교의 심리학자 Endel Tulving은 ‘일화적 기억(episodic memory)’과 ‘의미적 기억(semantic memory)’을 비교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의미적 기억’은 사실 또는 세상의

이뿐만 아니라 Chafe(1977a, 1977b)에서는 언어화의 원천이 되는 화자의 과거 사건에 대한 경험이 ‘특수하면서도(unique) 온통의 덩어리(whole)’로 머릿속에 남아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과거 사건에 대한 경험이 ‘특수하다’라고 한 것은 인간의 경험이 늘 특수한 사건과 상태와 참여자 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과거 사건에 대한 경험이 ‘온통의 덩어리’라고 한 것은 언어의 표면구조는 물론 의미구조마저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우리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화자는 이러한 성질을 가진 과거 사건의 경험을 언어로 바꾸어 청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 일은 온통의 덩어리 형태를 한 경험을 부분들로 분해함으로써 가능하다고 Chafe(1977a, 1977b)에서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경험을 분해하여 언어화하는 데 쓰이는 언어 재료가 다른 경험을 언어화하는 데에도 사용된 것이고, 또 앞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언어화할 때마다 우리가 새로운 언어 재료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언어화하는 데 쓰이는 언어 재료가 ‘징표(token)’가 아니라 ‘유형(type)’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앞에서 머릿속에 저장된 경험이 늘 특수한 사건과 상태와 참여자 등을 수반하여서 특수한(unique) 것이라고 주장한 Chafe의 설명을 살펴보았다. Chafe의 설명대로라면 ‘특수한 성질의’ 경험과 ‘유형의’ 언어 재료 사이에는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바로 언어화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즉, 언어화의 과정에서 경험의 특수성과 언어 재료의 유형적 성질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Chafe(1977a, 1977b)에서는 특수하면서도 온통의 덩어리인 경험을 (재사용할 수 있는) 언어 발화로 전환하는 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살폈다. 처음의 두 단계는 ‘하위 청크로 나누기(subchunking)’와 ‘명제화하기(propositionalizing)’로서, 이들은 통짜의 경험을 하위 부분들로 분해하는 과정이며, 세 번째 단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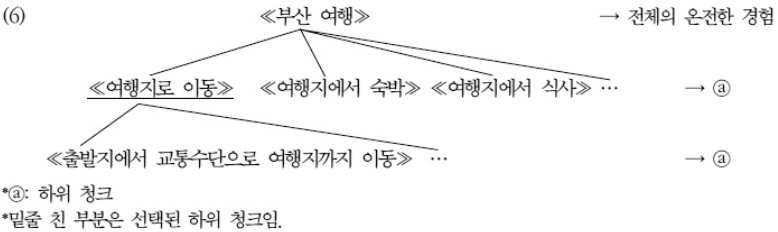
일반적 지식에 관한 기억으로서, 맥락과 특별히 관련될 필요가 없으며, 보통은 반복에 의해 기억이 강화된다. 이에 반해 ‘일화적 기억’은 구체적이며 자서전적인 사건들에 대한 기억으로서, 공간과 시간에 대한 맥락과 관련이 있으며 정보가 획득된 것과 다른 형태로 전달될 수 있다. 따라서 Chafe(1977a, 1977b)에서 제시한 과거 사건의 경험에 대한 기억은 일화적 기억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래의 획득된 정보가 상황마다 다른 형태로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명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범주화하기(categorization)’는 분해한 경험의 부분들을 명사나 동사와 같은 범주적 성격을 가진 내용어(content word)로 바꾸는 과정이다. 세 과정에서 일어나는 언어화의 양상을 아래 (5)의 예를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5) 소년은 이미 어제 부산에 와 있었다. 소년과 나는 택시를 타고 그날 해운대로 갔다. 해운대 하늘에는 갈매기가 우리를 마중하고 있었다.

① 하위 청크로 나누기(subchunking)

온전한 덩어리 상태의 경험은 시·공간적인 범위(spatiotemporal extent)와 회고할 수 있는 구체성(detail)의 정도에 따라 더 작은 청크(subchunk)로 나눌 수 있다(Chafe 1977b:220). 가령 (5)와 관련하여 화자는 ‘부산 여행’이라는 주제의 경험에 대해서 ‘여행지로 이동’, ‘여행지에서의 이동’, ‘여행지에서의 관광’, ‘여행지에서의 감동’ 등의 하위 경험으로 더 나눌 수도 있었다. 또한 이 경험의 무리는 다시 더 작은 경험의 덩어리로 세분할 수 있어서, ‘여행지로 이동’의 경우라면 이것을 다시 ‘출발지에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다’와 ‘언제 목적지에 도착하다’ 따위로 더 나누어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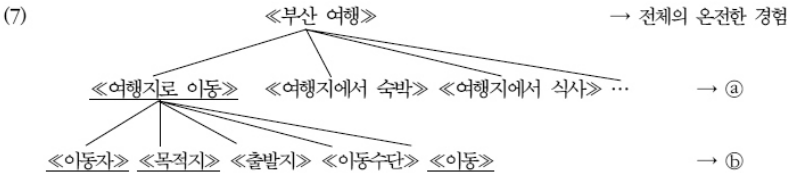


이처럼 경험의 온전한 덩어리를 더 작은 경험의 덩어리로 나눌 때는 언어 사용자의 의도된 ‘선택(choices)’이 개입하게 된다. 위의 예에서는 ‘부산 여행’의 경험 중에서 ‘여행지인 부산으로 이동’하는 하위 경험을 선택하였지만, ‘여행지인 부산에서 숙박’하고, ‘여행지인 부산에서 식사’하는 등의 하위 경험은

배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전체 경험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덩어리를 분해하고 어떤 부분을 또 제외할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분해한 경험의 덩어리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전경(foreground)으로 삼고 어떤 부분을 배경(background)으로 삼아야 할 것인지 등은 모두 화자가 선택해야 할 몫이다.¹⁷⁾ 그리고 경험의 덩어리를 더 작은 덩어리로 구분하고, 또 그 덩어리들을 전경과 배경으로 지위를 달리 하는 것은 전적으로 화자의 해석(construal)이 작용한 결과이다.

② 명제화하기(propositionalizing)

①에서 분해된 하위 청크들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개체들이 있다. 이들 개체는 이후의 단계에서 술어의 논항으로 기능하게 되는 지시체 후보이다. (5)의 예에서는 ‘소년’, ‘부산’, ‘나’, ‘택시’, ‘해운대’, ‘갈매기’ 등이 그런 개체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추출된 개체들을 분리하고 나면 남게 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술어의 후보가 된다. (5)에서 ‘오다’, ‘보다’, ‘마중하다’ 등이 그런 사건들이다. 이처럼 하위 청크들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존재하는 개체들과 사건들을 추출하는 일을 ‘명제화하기’ 단계에서 한다. 이렇게 추출된 개체와 술어는 궁극적으로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는 단위들로 기능할 것이다 (Chafe 1977a: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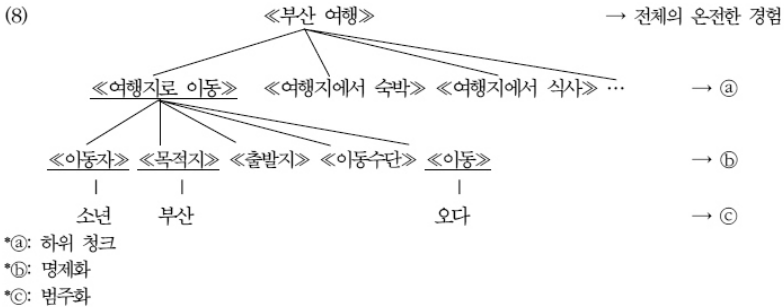
- *㉓: 하위 청크
- *㉔: 명제화
- *㉔의 밑줄 친 부분은 선택된 개체와 사건임.

17) 이러한 언어화의 속성은 ‘서사(화)’의 특성과 닮을 수밖에 없다. 오타번·이남호(1999)에서는 “모든 담화는 재료가 되는 대상을 취하여 그것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배열의 과정을 거친다. 언어는 훌륭한 표현수단이지만 모든 것을 옮길 수는 없다. 서사물은 독자들이 일상적 삶 속에서 상식적으로 짐작하고 상상할 수 있는 수많은 부분들을 미리 전제하고 이야기한다.”

‘명제화하기’ 과정에서도 ‘하위 청크로 구분하기’ 과정에서의 마찬가지로 언어 사용자의 의도된 선택이 작용한다. 가령, ‘소년은 어제 부산에 왔다’의 경험에는 분명히 ‘출발지’와 ‘이동 수단’ 등의 개체가 있었을 터이다. 그러나 이 예에서는 화자가 이동의 행위자와 목적지만을 과거 경험에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였을 뿐, ‘출발지’와 ‘이동 수단’ 등의 개체는 따로 선택하여 추출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5)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출발지’와 ‘이동 수단’의 개체를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지, 만일 다른 의사소통 상황이었다면 ‘출발지’와 ‘이동 수단’ 등은 ‘철이가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에 왔다’ 등으로 명제화하기 단계에서 추출될 수 있었을 개체들이다.

③ 범주화하기(categorization)

‘명제화하기’를 통해 추출한 개체와 사건은 아직까지 언어 표현의 옷을 입지는 못한 상태에 있다. ‘명제화하기’에서 추출된 개체와 사건은 ‘범주화하기’ 단계에 이르러서야 언어 표현의 옷을 입게 된다. 예를 들어, 《이동자》에 대해서는 ‘소년’을, 《목적지》에 대해서는 ‘부산’을, 《이동》에 대해서는 ‘오다’를 선택한 경우가 (5)의 예에서다. 이 과정에서도 화자의 의도된 선택이 개입할 수 있다. 《목적지》에 대해서 ‘부산’이 아니라 ‘항구도시’라든가, 아니면 ‘제2의 도시’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동》에 대해서도 ‘오다’가 아니라 ‘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후자를 지정해서 살펴보면, 화자가 《이동》에 대해서 굳이 ‘가다’의 단어를 선택하지 않고 ‘오다’를 선택한 이유는, 화자가 당시 부산에 있었음을 청자에게 말하려고 했던 까닭이다.



Chafe(1977a, 1977b)의 언어화 과정은 여기까지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 단계들만으로는 화자가 전하려고 하였던 온전한 경험의 내용을 청자와 함께 공유할 수가 없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범주화하기’ 단계의 산출물인 언어 표현은 특별히 ‘내용어’에 해당한다. 내용어가 가리키는 개체나 사건은 ‘범주’나 ‘유형’의 수준인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언어화를 통해서 화자는 청자에게 ‘범주’의 내용을 전달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화자가 청자에게 “책상이 정말 무겁네.”와 같이 발화하였다면, 이 때 ‘책상’은 화자와 청자가 대화 상황에서 협동상 두드러짐으로 서로 공유하고 있는 특수한 ‘책상’이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상’을 모은 내포적인 뜻으로 사용한 게 아니다. 둘째, 범주화하기 단계를 거쳐서 나온 언어 산출물은 그냥 낱개로 존재할 뿐이지, 이를 통사적으로 배열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화자가 청자에게 도대체 무엇을 통보(communicate)하려고 의도하는지에 대한 모형이 될 수 없다. 셋째, 화자는 청자에게 특정한 통짜의 경험을 전하려고 한다. 그 경험의 하위 청크 하나만을 청자에게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위 청크를 모아서 온전한 경험을 청자에게 환기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Chafe(1977a, 1977b)의 세 단계만으로는 하위 청크들을 응집성이 있게 모아서 다시 전체 경험을 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Chafe의 두 연구에서는 온통의 경험을 작은 부분들로 분해하고, 이걸 다시 유형의 성질을 지닌 언어 표현으로 범주화하여 놓는 것으로 그쳤다. 그러나 이 언어화 과제만으로는 본래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화자는 그 언어 표현을 특정한 것으로 재설정해야 하고, 이걸 통사적으로 배열하여 본래의 온전한 경험으로 되돌려야 한다(Croft 2007). 바로 이 과정에서 문법의 역할이 있으며, 이 글에서는 이 문법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Croft(2007)에서는 Chafe(1977a, 1977b)의 세 단계 언어화 모형에다 세 개의 언어화 과정을 보태서 새로운 언어화 모형을 발전시켰다.

(9) 언어화의 과정(Croft 2007)

분해하기		재조립하기	
㉠ 하위 청크로 구분하기		㉡ 결속하기	
↓		↑	
㉢ 명제화하기		㉣ 구조화하기	
↓		↑	
㉤ 범주화하기	⇨	㉥ 특정화하기	

‘하위 청크로 구분하기’부터 ‘결속하기’까지의 언어화 과정은 순차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roft(2007)에서 각 단계를 일렬로 배열하지 않고, 위와 같이 세 단계씩 마주 보게 한 것은 마주 보는 언어화 과정이 ‘분해하기’와 ‘재조립하기’의 면에서 대칭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㉔의 단계에서는 전체 경험을 하위 청크로 나누는 일을 맡지만, 마주 보는 ㉕의 단계에서는 나누어진 하위 청크를 전체 경험으로 되돌리는 일을 맡으므로, ㉔와 ㉕의 단계는 과제 성격이 대칭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특정화하기(particularizing)

‘범주화하기’를 통해 나온 결과물은 ‘범주’의 성질을 갖는 내용어다. 그러나 화자가 청자에게 전하려고 하는 과거 사건의 경험은 일화적 기억이기 때문에 그 경험에 포함되어 있는 개체나 사건 모두가 특정한 것이다. 따라서 ③ 단계를 거쳐서 나온 범주 혹은 유형의 언어 표현을 대상으로 이 언어 표현이 특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청자에게 환기할 필요가 있다.¹⁸⁾ 이 일을 ‘특정화하기’ 단계에서 맡아 처리한다. ‘특정화하기’에서는 범주에 대한 특정한 사례를 선택하고, 이를 시·공간의 장에 들여 놓는 일을 맡는다. Croft(2007)에서는 범주에 대한 특정한 실례(instance)를 정하는 일을 ‘선택하기(selecting)’로, 그리고 특정한 사례를 시·공간의 장에 들여 놓는 일을 ‘지정하기(situating)’로 구분하였다.

범주에 해당하는 내용어가 개체인가, 아니면 사건인가에 따라 ‘선택하기’의 방식이 다르다. 만일 내용어가 개체라면 ‘수’나 ‘양화’를 통하여 개별화한다. 우리말에서는 개체를 개별화하기 위하여 분류사(classifier)를 사용하거나 ‘-들’, ‘-네’, ‘-회’와 같은 복수 표시 접미사 등을 사용한다. (5)의 예에서는 그러한 언어 형식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나’라는 대명사는 이미 ‘선택하기’의 기능을 내재화한 표현임을 지적해 둔다. 그 외의 개체 대응 명사 단어들의 개별화 여부는 모두 맥락을 통하여 청자가 해석해야 할 몫이다.¹⁹⁾ 한편 범주에 해

18) 순수하게 언어 표현만으로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정화하기’ 단계에서는 유형/범주를 분해하여 개별화하고, 시간이나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언어 표현의 지시(체/사건)를 상대적으로 해석하는 정도의 일만 할 뿐이다. 그 이상으로 해당 언어 표현이 절대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발화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가 언어 표현을 근거로 하여 상호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19) 우리말은 비교적 분류사가 발달한 언어이지만, 수 표현은 그렇지 않다. 우리말은 영어, 독일

당하는 내용어가 사건이라면 문법적 상(aspect)을 통하여 사건을 개별화한다. 위의 예에서는 '-어 있-'으로 '완료'를, '-고 있-'으로 '진행'의 상을 표시한 것이 눈에 띄인다.

다음은 특정한 사례를 시·공간의 장에 들여 놓는 '지정하기'를 살펴보기로 하자.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기반인 시·공간의 장(즉, 정신공간)에서 특정한 참조물(referent)이나 사건을 정하는 것이 '지정하기'에서 이루어지는 개념화이다. 이 과정에는 반드시 '전경-배경 스키마(figure-ground schema)'가 작동한다. 다시 말해서, 전경은 배경이 되는 대상과 관련하여 의미 가치가 정해지게 된다. 가령 (5)의 예에서 대명사 '나'와 '우리'는 발화 주체인 화자를 배경으로 하여 구체적인 지시체가 정해진다. 우리말의 지시대명사가 이런 역할을 주로 하도록 문법화되어 있다. 내용어도 '지정하기'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다. (5)의 예만 하더라도 화자의 발화 위치를 배경으로 의미 해석될 수 있는 '오다'의 예를 더 찾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개체가 특정한 공간적 배경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으로 해석되는 예를 살펴보았는데, 특정한 시간적 배경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해석되는 대상이나 사건의 예가 있다. 이 역할을 하기 위하여 가장 문법화가 발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제'다. (5)의 예에서는 모두 '-었-'이라는 과거 시제가 사용되어 해당 사건이 화자가 발화한 시점보다 전에 일어난 일임을 나타낸다. 한편 화자의 발화시를 시간적 참조점으로 하여 해석될 수 있는 예는 (5)에서 '어제'와 '그날'을 더 찾아볼 수 있다.

⑤ 구조화하기(structuring)

④의 단계에서 화자가 개체와 사건을 '특정화'하였다면, 이 단계에서는 화자가 청자에게 전하려고 하였던 원래의 전체 장면을 청자로 하여금 환기하게 하기 위하여 개체와 사건을 구조화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체와 사건을 구조화하는 방법이 매우 복잡하다. 이 문제는 개체와 사건의 관계가 모호하여 개체

어 등 인도유럽어들과 달리 단수와 복수를 나타내는 수 표현이 문법 범주로 발달하지 않은 언어이다. 인도유럽어들에서는 체언의 복수형이 굴절에 의해 표시될 뿐 아니라 형용사나 동사의 활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우리말의 경우 복수의 표시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지만 규칙성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영근·구본관 2009:81).

와 사건을 각각 어떻게 문법적으로 부호화하는지를 명쾌하게 정할 수가 없어서 생긴 것이다. 즉, 개체와 사건을 구조화하는 데 몇 가지 중첩되는 방식이 있다는 게 문제의 원인이다.

이 단계에서 진행되는 핵심적인 일은 특정화한 개체와 사건을 가지고 이른바 통사적 논항구조로 부르는 문법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10) 가. 철이는 탁자 위에 지갑을 살며시 놓았다.

나. 지갑은 철이에 의해서 탁자 위에 살며시 놓였다.

다. 철이가 지갑을 살며시 놓은 곳은 탁자 위였다.

(10가)에서는 행위자(Agent) ‘철이’를 주어로, 대상(Theme) ‘지갑’을 목적어로, 목적지(Goal) ‘탁자 위’를 부사어로 나타내었다. 그런데 행위자를 주어로, 대상을 목적어로 항상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사건에 대하여 (10나)에서는 대상이 주어로 오는 피동 구문으로 교체가 되었으며, (10다)에서는 분열 구문으로 교체가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같은 사건의 ‘행위자-대상-목적지’와 같은 의미역 구조가 (10)에서처럼 서로 다르게 구조화한 것은 담화상의 대화자가 어떤 목적을 가졌는가에 달려 있다. 즉, 화자가 어떤 개체나 사건을 더 주제적인 것(topicality)으로 해석하고 덜 주제적인 것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개체와 사건의 구조화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⑥ 결속하기(cohering)

기원이 되는 전체 경험을 청자가 환기할 수 있도록 하위 청크들을 모아서 전체로 조립한다.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절 연결 장치(clause linking device)가 쓸모가 있다.

(11) [소년은 이미 어제 부산에 와 있었다.]U1 [소년과 나는 택시를 타고 그날 해운대로 갔다.]U2 [해운대 하늘에는 갈매기가 우리를 마중하고 있었다.]U3

위에서 U1과 U2는 ‘소년’이라는 동일한 단어에 의해 연결되었고, U2와 U3는 동일한 단어인 ‘해운대’, 그리고 ‘우리’라는 대명사를 통하여 연결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Chafe(1977a, 1977b)의 언어화 과정과, 이를 보완한 Croft(2007)의 언어화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살펴보았다. 언어화의 시작은 화자가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과거 사건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화자가 언어화하여 청자에게 전한 경험은 화자가 기억하고 있는 과거 사건의 경험을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다. 경험을 부분들로 분해하여 유형으로 범주화하는 과정과, 이 유형들을 특정화하고 그 부분들을 다시 합치는 과정에서 기원이 되는 경험의 내용과 언어화한 경험의 내용이 변할 수밖에 없다.

대신 언어화의 각 과정에서는 해석(construal)을 동반한다. 온전한 경험의 덩어리를 하위 청크로 나눌 때 어떤 하위 청크를 선택할 것인지도 화자의 해석이 동반되고, 하위 청크들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존재하는 개체와 사건을 선택하여 추출할 때에도 화자의 해석이 뒤따르며, 추출된 개체와 사건에 대하여 언어 표현의 옷을 입힐 때에도 화자의 해석이 수반된다. Chafe(1977a, 1977b)에서 언어화 과정이라고 든 위의 세 단계는 과거 사건의 경험에 대한 온통의 기억을 분해하고 이 속에서 추출된 개체와 사건에 언어 표현의 옷을 입히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는 화자의 해석이 동반된 선택의 개념화가 뚜렷하게 보인다.

그런데 Chafe(1977a, 1977b)의 언어화 과정은 온통의 경험을 분해하여 언어 표현의 옷을 입혔지만, 청자가 최종적으로 접하게 되는 그 언어 표현만으로는 화자가 전하려는 경험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개체와 사건을 가리키게 되는지를 확인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는 언어의 한계에서 비롯되는데, 더 정확히는 유형/범주의 성질을 지닌 내용어에서 비롯된다. 청자는 화자의 언어적 발화를 통하여 화자의 과거 사건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려고 한다. 그 경험 속 개체와 사건들은 모두 특정한 것이고, 개중에서 어떤 개체나 사건은 다른 개체나 사건에 비해 더 주제적인 것도 있다. 시·공간의 배경에서 개체와 사건의 실례를 확인하고, 주제에 따라 개체와 사건을 구조화하는 일은 내용어가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었다. 대신 이 일을 문법이 맡아서 할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언어화 과정에서 문법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문법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법은 기술문법과 생성문법이다. 두 문법이 언어의 구조와 체계를 규명하는 데 공이 컸지만,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언어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간과하여서 언어와 메시지의 관계, 언어화 화·청자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법 기능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대표적인 양상인 의사소통에서는 여러 가지 상호조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조율의 장치로서 언어가 발전해 왔지만, 언어가 상호조율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언어는 지표성과 중의성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개의 지표성 문제는 내용어 차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문법적 장치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해 낼 수 있다.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문법 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언어화 과정에서 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지금껏 언어화 연구의 대표는 Levelt(1989)이라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언어화 이전의 메시지가 명제 형식으로 표상되어야 하고, ‘문법 부호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문법 기능을 지나치게 축소한 경향이 있다.

이에 Chafe(1977a, 1977b)에 주목하게 된다. Chafe는 Levelt(1989)에서 명제 형식이라고 주장한 언어화 이전의 메시지가 사실은 특징하고 온전한, 과거 사건에 대한 화자의 경험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경험을 분해하고 거기에다 언어 표현의 옷을 입히는 언어화 과정을 Chafe의 두 연구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지만, 여전히 내용어가 지닌 언어의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는 문법 장치를 가지고 어느 정도 극복할 수가 있는데, Croft(2007)에서 잘 보였다.

이 글에서는 언어화 과정을 통하여 문법의 기능을 살펴보았지만, 언어화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 Chafe(1977a, 1977b)에서 과거 사건의 경험은 일화적 기억에 해당하는데, 이 기억만 언어화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화적 기억의 상대가 되는 의미적 기억도 틀림이 없는 언어화의 대상이다. 그리고 언어화로 이어지는 양상도 매우 복잡할 터인데,

이 글에서는 진술문이나 평서문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화행(speech act) 등을 고려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뒤 이은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고영근·구분관,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09.
김지홍, 『언어의 심층과 언어교육』, 경진, 2009.
김지홍, 『르벨트의 언어 산출 모형에서 몇 가지 문제』, 『언어』 36-4, 2011.
오탁번·이남호, 『서사문학의 이해』,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9.
이익섭·임홍빈, 『국어문법론』, 학연사, 1993.
이익섭·채완,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1999.
한정환, 『문법의 의미』, 『한국어학』 19, 2003.

- Beckner, C., Blythe, R. A., Bybee, J. L., Christiansen, M. H., Croft, W., Ellis, N. C., Holland, J., Larsen-Freeman, J. Ke, D., and Schoenemann, T.(2009), 『Language is a complex adaptive system.』, *Language Learning* 59:Supplement 1.1-26, 2009.
- Caramazza, A. and Miozzo, M, 『The Relation between Syntactic and Phonological Knowledge in Lexical Access: Evidence from the “Tip-of-the-Tongue” Phenomenon』, *Cognition* 64, 1997.
- Chafe, W, 『Creativity in verbaliz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nature of stored knowledge』, In Roy Freedle (ed.), *Discourse production and comprehension*, 41-55, Ablex, 1977a.
- Chafe, W, 『The recall and verbalization of past experience』, In Peter Cole (ed.), *Current issues in linguistic theory*, 215-246, Indiana University Press, 1977b.
- Clark, H, *Using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Croft, W, 『The origins of grammar in the verbalization of experience』, *Cognitive Linguistics* 18. 339-82, 2007.
- Engelkamp, J., and Rummel, R, 『The Architecture of the Mental Lexicon』, In A. Friederici (ed.), *Language Comprehension: A Biological Perspective*, 133-174. Springer, 1998.
- Fodor, J, *The Modularity of Mind*, MIT Press, 1983.

- Jackendoff, R, Foundations of Language: Brain, Meaning, Grammar, Evolu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Levelt, W, Speaking: From Intention to Articulation, MIT Press, 1989.
- Levelt, W, 「Producing Spoken Language: A Blueprint of the Speaker」
In C. M. Brown and P. Hagoort (eds.), The Neurocognition of Language, 83-122.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Lewis, D, Convention: A Philosophical Study, Harvard University Press, 1969.
- Talmy, L,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MIT Press, 2000.
- Tomasello, M, Constructing a Language: A Usage-Based Theory of Language Acquis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국문초록】

이 글은 언어화 과정에서 문법의 기능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문법은 의사소통을 위하여 소용된다. 하지만 기존의 기술문법과 생성문법에서는 이 점을 간과하였다. 의사소통의 상황에서 문법 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언어화 과정에서 살필 수가 있다. Levelt(1989)는 언어화 연구의 대표격이지만, 언어화 과정에서 문법 기능을 지나치게 축소한 경향이 있다. Croft(2007)에서는 Chafe(1977a, 1977b)의 연구를 보완하면서 언어화 과정에서 문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었다. 문법은 화자의 해석에 따른 선택의 언어 장치이기도 하지만, 내용어로 하지 못하였던 개체와 사건의 특정화, 구조화 등을 할 수 있다.

주제어: 언어화, 의사소통, 문법, 내용어, 언어 생산

【Abstracts】

A function of the grammar in verbalization

Lee, Dong-hyeo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 function of the grammar in verbalization. A communication reveals a function of the grammar. Although verbalization is involved in a language production model, Levelt(1989) didn't show a function of grammar in its model. Croft(2007) completed the verbalization model by supplementing Chafe(1977a, 1977b). Chafe(1977a, 1977b) divided the process that unique whole experience of past event is decomposed into parts and expressed in language into three stages. These stages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content word was not perfect. Grammar can overcome the imitations of content words by particularizing and structuring the objects and events.

key words : verbalization, communication, grammar, content word, language production

이 논문은 2012년 6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2년 7월 30일에 심사 완료되어 8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